

축 사

한 격 부 (대한의학협회장)



大韓看護協會에서 發刊하는 機關誌「대한간호」가 어느덧 誌齡 1百號를 맞이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대한간호」는 1953년 續刊된 이래 25년이라는 장구한 歲月동안 꾸준한 成長을 거듭하여 왔으며, 看護協會 회원들의 對話의 廣場으로서 會員의 소리를 正성껏 紹介함으로써 會員들의 興望이 어떤 것이며 期待하는바가 무엇인가를 잘 반영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保健醫療界의 輿論을 健全하고 올바르게 誘導하여 國家保健政策 수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國民保健向上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길만큼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부터 醫術은 仁術이라고 하였고, 看護員은 白衣의 天使로 불리어 왔습니다. 그 까닭은 醫術이 단순한 生命科學의 범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本性이나 마음의 疾患까지 다루는 학문인 동시에 醫術이 技術로서가 아니라 使命感으로서 배풀어지는데 더 큰 比重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看護員은 아픈 사람을 看護하는 단순한 奉仕의 자세로서가 아니라 그 精誠과 마음가짐이 마치 求道者와 같이 昇華된 領域에까지 到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白衣의 天使라고 불리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仁術의 領域에서 看護가 차지하는 구실은 참으로 큰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醫術이 仁術이라고 불리워지는 말뜻 가운데는 看護의 役割까지 包含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醫療를 베푸는데 있어 看護를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만큼 看護는 醫療의 한 部分으로서 確固不動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看護員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대한간호」가 해야 할 일도 무겁고 큰 것입니다.

특히 醫療保險의 실시로 社會保障制度의 確立을 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어 디딘 우리나라의 現實情에 비추어 볼 때 우리 醫療界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重要한 時期에 우리들은 診療室에서의 醫師와 看護員의 調和와 協力에 못지 않게 對政府 對社會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協力이 必要하다고 결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診療室에서 醫師와 看護員사이에 이루어지는 完備한 팀·웍과 呼吸의 一致가 絶박한 危機에 處한 人間의 生命을 기적적으로 구할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患者를 쉽사리 회복시키며 治療期間을 縮短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分野에서도 醫師와 看護員이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할때,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모든 어려운 문제도 용이하게 풀리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各分野에서 急速한 發展을 거듭하여 이제는 머지않아 先進國과 隊列을 같이 할 수 있을만큼 國力の 伸長을 가져왔습니다. 그와함께 우리나라의 醫學水準도 先進諸國의 水準과 견주어 볼때 결코 손색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力伸長이나 醫學水準의 發達에 비해 一般國民의 道義心이나 醫道도 그만큼 向上되었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物質的인 풍요나 外形的으로 나타나는 성장보다 精神的인 풍요와 內實이 더욱 값진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大韓看護協會가 올해에 看護理念인 人道主義를 實踐하는 참 看護실천운동을 벌이기로 決議한것은 참으로 뜻깊고 가룩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運動이 훌륭한 結實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러한 운동이 成功하기 위해 「대한간호」의 役割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한간호」가 看護의 理念을 살리고 看護員의 地位向上과 身分保障을 이룩하는 牽引車가 될것으로 確信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1百號를 맞은 「대한간호」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看護歷代任員들과 會員들 그리고 「대한간호」의 編輯實務를 맡아 맡겨짐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祝福과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대한간호」의 무궁한 發展을 빕니다.

아 픈 상 처 아 픈 마 음
참 간 호 로 보 살 피 자